

# 중국의 한국 대중문화 접촉과 언어 차용 현상 연구

강희숙(조선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언어적 접촉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매우 유서 깊은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접촉은 필연적으로 언어 차용(language contact)을 야기하였는바,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그 방향은 상당 부분 ‘중국어→한국어’, 곧 한국어에 중국어가 유입되는 일방향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한국어’라는 언어 차용의 일방향성은 20세기 후반 들어 그 양상을 달리하기 시작한다. 1997년경 중국에서 첫발을 내딛게 된 한류가 마치 터진 붓물처럼 견잡을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 일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국어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류(韓流)’란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유행하여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뜻한다. 이와 같은 한류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나타난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한국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일부 중국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차용 현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을 넘어 대중매체를 포함한 일상생활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없지 않아, 그동안 판영·이정복(2016), 한신신·강희숙(2017)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적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 문제는 판영·이정복(2016)은 종결어미 ‘思密达(습니다)’의 차용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한신신·강희숙(2017)은 다양한 범주의 어휘 형태소와 문장의 차용 현상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본격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차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른바 사드 갈등으로 인한 한류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차용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와 함께, 온라인 매체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차용 현상이 어떻게 대중매체 또는 일상생활로 확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드 갈등으로 인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차용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두 나라간 문화 접촉으로 인한 차용 현상이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중 대중문화 상호 작용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한류의 유입과 온라인 매체에서의 한국어 차용

1990년대 말부터 주로 중국 대도시의 청소년들 가운데서 한국의 댄스, 음악, 드라마

등 대중문화 상품들이 크게 유행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생성된 ‘한류’라는 유행어의 확산은 중국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을 매체로 하는 신형 매체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한홍석 2005). ‘한류’라는 용어의 확산이 신형 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무관하지 않듯이, ‘한류’의 유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한국어의 차용 현상 또한 신형 매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판영·이정복(2016)에서 중국 최대의 검색엔진인 ‘바이두(百度)’의 게시판에 해당하는 ‘티에바’와 사회적 소통망(SNS)인 ‘웨이보’에서 수집한 게시 글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신신·강희숙(2017)에서 ‘웨이보’의 게시 글을 대상으로 한 것도 그러한 배경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웨이보’에서의 한국어 차용은 2018년 7월 31일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법 단위의 수준에 따라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 문장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음이 특징이다.

## 2.1. 한국어 어휘 형태소의 차용 양상

어휘 형태소 차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사용되는 차용어로는 한국어 친족 호칭어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호칭어 차용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大家现在可能被孔侑**欧巴**迷的不要不要的(지금 다들 공유 오빠에게 빠진 것 같아요.)
  - ㄴ. wuli长腿**oppa**做的酱油肉真的,太太太好吃啦(우리 긴 다리 오빠가 만든 간장삼겹살 진짜 맛있어요.)
- (2) ㄱ. 早安,wuli圣经**欧尼**(좋은 아침, 우리 성경 언니)
  - ㄴ. 新年快乐哟,wuli**欧妮**回来了,开心(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언니 왔어요. 기뻐요.)
  - ㄷ. **oni**做的蛋包饭 厉害了word姐(언니가 한 오므라이스, 대단해요 우리 언니)
- (3) 曹圭贤#我们**忙内**,我们老幺要入伍了(#조규현#우리 막내, 우리 막내도 곧 입대하세요.)
- (4) @朴寶劍 谢谢你的morning call,**努那**的♥都要化了(@박보검 너의 모닝콜 고마워, 누나의 마음이 녹을 것 같아.)
- (5) 钟国**hiong**唱的歌好棒(중국 hiong 노래 진짜 잘해요.)
- (6) 候车厅,刚走了一个一直抖腿抖的我好不容易熟悉他的节奏感的**阿泽西**(터미널에서 내 옆에 앉은 아저씨가 계속 다리를 떨었어요.)
- (7) 我们说好看帅哥的可惜只有**阿祖玛**(미남을 보러 왔는데 아줌마밖에 없네요.)

위의 예들은 ‘오빠, 언니, 형, 누나, 막내, 아저씨, 아줌마’ 등 같은 다양한 한국어 친족 호칭어들이 차용어로 쓰이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차용어의 표기 방식은 경우에 따라 일종의 언어 변이(linguistic variation)를 보여주기도 하는바, 그에 따른 언어 변이형(linguistic variants)까지를 고려하여 각각의 변이형들이 웨이보에서 어느 정도 출현하는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차용 호칭어의 변이형별 출현 빈도

호칭어	변이형	출현 빈도 <sup>1)</sup>
오빠	歐巴(ōubā, 어우바)	79,298,153
	偶吧(ǒubā, 어우바)	13,937,501
	oppa	5,653,777
	oba	3,447,932
	偶巴(ǒubā, 어우바)	1,223,864
	obba	877
	ouba	561
언니	歐尼(ōuní, 어우니)	49,515,480
	歐妮(ōunī, 어우니)	761
	oni	1,363,183
형	hiong	335,209
누나	努那(nūnà, 누나)	1,982,747
	nuna	2,598,388
막내	忙內(mángnèi, 망네이)	38,259,813
아저씨	阿加西(ājiāxī, 아지아씨)	1,065,425
	阿扎西(āzhāxī, 아자씨)	80,552
	阿澤西(āzéxī, 아자씨)	670
아줌마	阿祖瑪(āzǔmǎ, 아주마)	603

여기에서 보듯이 웨이보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호칭어들이 차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용어들은 음역(音譯)을 원칙으로 하되, 많은 경우 표기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변이형들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 ‘오빠’의 경우, ‘歐巴, 偶吧, 偶巴’ 등의 한자 표기형과 함께 ‘oppa, oba, obba, ouba’ 등 같은 로마자 표기형들이 변이형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네티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한국어 차용 표현으로는 ‘님’을 들 수 있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8) ㄱ. 怎么会有这么甜的代表**nim**(이렇게 달콤한 대표님이 어디 있어요?)

ㄴ. #张水院# 跟 #姜成勋# 两位黑白王子**nim**(#장수원#과 #강성훈# 흑백왕자님)

(9) ㄱ. 尹斗俊**nim**出演的MBC我独自生活要播放了(윤두준 님이 나온 ‘나 혼자 산다’ 곧

1) 2018년 7월 31일 기준.

방송해요.)

ㄴ. 具nim超美超有才超能干啊(구 님 예쁘기도 하고 재능도 많고 일도 잘하네요)

위의 예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어 어휘 '님'을 음역하되, 표기는 로마자 'nim'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용하고 있다. 'nim'은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접미사와 의존 명사로 쓰인다. 즉, (8)에서는 'nim'이 직업, 신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9)에서는 의존 명사로서 성이나 이름 뒤에서 쓰이는 일종의 호칭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호칭어들 외에도 보통 명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품사 범주에 속하는 어휘 형태소들이 또한 차용되고 있다. 우선 명사 가운데 보통명사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이 어떻게 차용되고 있는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ㄱ. 亲故们 灿烈的狗狗叫什么啊(친구들, 찬열의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ㄴ. Wuli大亲故海老师, 爱你一万年(우리 큰 친구 하이선생님 영원히 사랑해요.)

(11)ㄱ. 你唯一喜欢了很久的爱豆是谁?(당신이 오랫동안 유일하게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예요?)

ㄴ. #郑振永##B1A4# 晚安郑里兜(#정진영##B1A4# 잘 자요 정 리더)

ㄷ. 冷静擔當 智商擔當 武力擔當 领队力又max 简直像看电影一样(침착담당, 지능담당, 무력담당, 리더파워 세고, 영화 보는 것 같다.)

위의 예들 중 (10)은 한국어 명사 '친구'가 '親故'로, (11)은 '아이돌, 리더, 담당' 같은 명사들이 각각 '爱豆, 里兜, 擔當'으로 차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의 '친구'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朋友(붕우)'인데, 온라인에서는 '朋友'를 대신하여 '親故'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11)의 '아이돌, 리더, 담당2)' 같은 어휘들의 차용은 K-pop의 확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K-pop이 중국의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음으로써 이와 관련된 어휘들 역시 활발하게 차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먹방, 쿡방, 눅방' 등 한국어 신조어 명사들도 각각 '吃播', '煮播', '躺播'으로 차용되어 쓰인다.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2)ㄱ. 韩国吃播可爱的Nado醬, 吃自己做的炸丸子(한국 먹방 귀여운 Nado짱, 자기가 튀긴 도넛을 먹는다.)

ㄴ. 我本身不是食欲特别旺盛的人, 但是喜欢动手! 比起吃播我真的好喜欢煮播!(나는 식욕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고, 요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 나는 먹방보다 쿡방을 더 좋아한다.)

ㄷ. #ASTRO#昨晚熬夜看了躺播, 听了新歌, 真的超级好听(#ASTRO# 어제 밤새서 예들 눅방을 보고 신곡을 들었다. 노래 진짜 좋았다.)

위의 예들 가운데 (12)의 '吃播'는 '음식 먹는 방송'을 지칭하는 말인 한국어 '먹방'을 의역한 것이다. '먹방'이란 말은 2008년경 인터넷 방송에서 방장(房長) 본인이 무언가를 직접 먹으며 시청자들의 식욕을 돋우거나 잔한 느낌을 전함으로써 방송 시청을 유도

2)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저마다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구분되어 있다. 비주얼 담당, 메인보컬 담당, 래퍼 담당, 댄스 담당, 외국어 담당 등이 그것이다.

하는 식으로 전개된 것과 관련된 말이었다.<sup>3)</sup> 이러한 ‘먹방’ 프로그램이 중국 네티즌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차용된 것이 바로 ‘吃播’이다. (12ㄴ)에서는 ‘吃播’와 함께 ‘煮播’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꽤 다양한 ‘쿡방’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는데,<sup>4)</sup>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가리키는 차용 표현으로 ‘煮播’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2ㄷ)에서는 ‘躺播’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출연자들이 누워서 진행하는 방식의 방송 프로그램을 이르는 한국어 ‘눹방’을 차용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명사들 외에도 웨이보의 한국어 차용어들 가운데는 대명사 ‘우리’를 비롯하여, 형용사, 부사, 감탄사 등 다양한 품사의 어휘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3) ㄱ. 厉害了wuli薛先生<sup>5)</sup>(대단해요. 우리 설 선생)  
 ㄴ. 陪屋里迪迪相约#西游·降魔篇2#(우리 디디와 #서유기·항마편2#를 봤어요.)  
 ㄷ. 吾里太后娘娘 看镜头还害羞(우리 황후마마, 카메라를 보니까 부끄러워하시네요.)
- (14) ㄱ. 伊布哒 我男神(예쁘다 내 남신)  
 ㄴ. 完全伊布哒 阿伦达喔 (완전 예쁘다. 아름다워!)  
 ㄷ. 今天一天木有粗饭了 啊~嘛西噠~(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아~맛있다~)  
 ㄹ. 把男人们都衬托得闹木么西哒(남자들이 너무 멋있게 돋보인다.)
- (15) ㄱ. #吴世勋# 小时候闹木闹木的可爱(#오세훈# 어릴 때 너무너무 귀여워요.)  
 ㄴ. 宝宝们麻尼麻尼可爱(아이들이 많이많이 귀여워요.)  
 ㄷ. 快点到我碗里来,吧哩吧哩(빨리빨리 내 그릇에 들어와, 빨리빨리)  
 快点! 巴里巴里! 我有点扛不住了 (빨리, 빨리빨리! 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希望黑色6月快点过去! balibali! (6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ㄹ. 亲加冷 亲加不爱吃(진짜 추워요. 진짜 입맛에 안 맞아요.)
- (16) ㄱ. 阿一古看了视频好难过 (아이고, 동영상을 보니까 많이 슬퍼요.)  
 ㄴ. 21点太阳的后裔, 哦莫哦莫, 好激动(21시에 태양의 후예 어머머머 설레요.)

위의 예들 가운데 (13)은 한국어 1인칭 대명사 ‘우리’의 차용 표현들이다. 로마자 ‘wuli’ 외에 ‘屋里, 吾里’ 같은 한자 표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다양한 의미 기능 가운데 말하는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14)는 ‘예쁘다, 맛있다, 멋있다’ 등 한국어 형용사의 차용 표현들이다. ‘예쁘다’는 ‘伊布哒’(14ㄱ)로, ‘아름답다’는 ‘阿伦达喔’(14ㄴ), ‘맛있다’는 ‘嘛西噠’(14ㄷ), ‘멋있다’는 ‘么西哒’(14ㄹ)로 각각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웨이보에서는 ‘너무, 많이, 빨리, 진짜’ 등 한국어 부사어 차용 현상도 찾을 수 있다. (15)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부사어의 차용을 위해서는 ‘闹木, 麻尼, 吧哩, 亲加’ 등의 한자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吧哩’의 경우는 ‘바리’나 로마자 ‘bali’를 또한 사용하기도 한다. ‘亲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들 부사어의 중첩형인 ‘闹木闹木, 麻尼麻尼, 吧哩吧哩’을 사용하여 강조적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17ㄷ)에서 이루어진 ‘빨리’의 차용 표현들, 곧 ‘吧哩, 巴里, bali’를 동의한 의미를 지닌 중국어 어휘 ‘快点’과

3) 네이버([www.naver.com](http://www.naver.com)),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인물과사상사) 참조.

4) <삼시세끼>를 비롯해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 뭐 먹지?>, <올리브쇼>, <수요 미식회> 등이 그것이다.

5) 설 선생은 중국 가수인 薛之谦를 가리킨다.

함께 사용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반복적 배치를 통한 차용 표현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더욱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18)은 한국어 감탄사 ‘아이고’ 또는 ‘어머’ 등에 대한 차용 표현의 사례이다. ‘阿一古, 哦莫’로 음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머’ 또한 ‘哦莫哦莫’ 식의 중첩 표현을 통해 강조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2. 문법 형태소 ‘思密达’의 차용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어 문법 형태소 ‘-습니다’를 한자 표기 ‘思密达(simidá, 쓰미다)’로 음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思密达’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활발하게 쓰이는 차용 표현이다. 그만큼 문법적 기능도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思密达’는 일차적으로 ‘한국 지시하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 (17) ㄱ. 帮你们去思密达国看了一下长腿欧巴们(너희들 대신 ‘습니다국’에 가서 긴 다리 오빠들을 보고 올게.)  
ㄴ. 一下飞机耳朵里面全听到思密达(비행기에서 내리니 ‘습니다’만 들려요.)  
ㄷ. 据说除了思密达, 最爱吃泡菜的还有四川人(‘습니다’ 빼고 사천성 사람도 김치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위의 예 가운데 (17ㄱ)은 ‘思密达’가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17ㄴ)은 ‘한국어’를, (17ㄷ)은 ‘한국인’을 각각 가리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思密达’가 한국 또는 한국인을 폄하하는 부정적인 뜻을 지니기도 했지만, 한국이나 한국어 또는 한국인에 관련된 다양한 사물을 가리키기 위한 지시 기능을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思密达’가 단순히 한국을 지시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현재는 한국과 상관없이 ‘思密达’를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이 그 예이다.

- (18) ㄱ. 滑雪思密达(눈썰매 탄다 ‘습니다’)  
ㄴ. 谢谢思密达(감사합니다 ‘습니다’)  
ㄷ. 开森思密达(기쁘다 ‘습니다’)  
(19) ㄱ. 您吃了吗思密达(드시고 싶으세요? ‘습니다’)  
ㄴ. 新年想要瘦一点思密达(새해에는 날씬해지고 싶어요. ‘습니다’)  
ㄷ. 重感冒啊!思密达(독감이야. ‘습니다’)  
ㄹ. 晚安思密达(잘 자요. ‘습니다’)

(18)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思密达’를 붙여서 쓰는 사례들인데, 이는 (17)의 경우와 달리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의 네티즌들이 ‘思密达’를 오락 또는 유희적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습니다’를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등 문장 유형에 상관없이 두루 쓰기도 한다. (19)의 용례들에서는 문장 끝에 ‘思密达’를 덧붙여서 마치 중국어의 ‘어기조사(語氣助詞)<sup>6)</sup>

6) 어기조사란 문장 끝에 놓여 화자의 기분, 상태, 의도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기조사는 한국어에서 ‘-는다, -느냐, -자, -어라’ 등 다양한 어말어미가 붙어 문장의 뜻이나 어투가 달라지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처럼 쓰고 있다. 이 가운데 (19ㄱ)은 2인칭 높임 표현 ‘您’를 쓰면서 문장 끝에 ‘思密达’를 붙여 쓴 것이다. 중국어에 없는 문법적 높임 표현을 구현하기 위해 ‘思密达’를 차용해서 높임법을 보충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sup>7)</sup>

위에서 제시한 용법 외에 다른 차용 표현 뒤에 ‘思密達’를 덧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20) ㄱ. 新的一年希望大家多夸夸我, 康桑思密达(새해에 다들 저를 많이 칭찬해줘요. ‘감사합니다.’)  
 ㄴ. 生日粗卡思密达(생일축하 ‘습니다’.)  
 ㄷ. 乐天乐园卡哇伊思密达(롯데월드 귀엽다 ‘습니다’)

(20ㄱ)에서는 ‘감사’에 ‘思密达’를, (20ㄴ)에서는 ‘축하’에 ‘思密达’를 붙여서 각각 한국어 ‘감사합니다’와 ‘축하합니다’의 뜻으로 쓰고 있다. (20ㄷ)은 일본어 차용어 ‘卡哇伊<sup>8)</sup>’에 ‘思密达’를 붙여서 쓴 것이다. 이처럼 ‘思密达’는 다른 외래어와 함께 차용되기도 한다.

### 2.3. 한국어 문장의 차용

중국의 네티즌들은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어휘나 ‘-습니다’ 외에 간단한 문장도 차용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랑해요/사랑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완전 예쁘다’ 같은 문장의 차용이다.

- (21) ㄱ. wuli宝剑撒浪嘿哟(우리 보검 씨, 사랑해요.)  
 ㄴ. 撒哟那拉, my北鼻, 撒浪嘿, my亲故(안녕, 우리 베이비, 사랑해, 우리 친구)  
 ㄷ. 谢谢款待, 康桑哈密达(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ㄹ. 中学毕业四周年粗卡哈密达(중학교 졸업 4주년 축하합니다.)  
 ㅁ. 生日粗卡, 罪送哈密大, 迟了点, 爱你(생일 축하, 죄송합니다. 좀 늦었어요.)  
 ㅂ. 我的记忆力你懂的, 罪送哈密大, 康桑哈密达(내 기억력 다들 알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2) 完全伊布哒 阿伦达喔(완전 예쁘다. 아름다워!)

위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네티즌들은 문장 수준의 한국어를 다양하게 차용하고 있다. 차용 표현으로는 ‘撒浪嘿哟(sǎlànghēiyō: 사랑헤이요), 康撒哈密達(康桑哈密大, kāngsānghāmídá:강상하미다), 粗卡哈密達(cūkāhāmídá: 추카하미다), 罪送哈密大(zuìsònghāmídá:쭈이송하미다)’ 등의 한자 표기가 주로 쓰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용 표현들은 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문장 차원의 차용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22)의 경우처럼, 문장 전체를 차용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장 차원의 차용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7) 판영·이정복(2016)에서는 ‘思密达’의 기능을 ‘한국 지시 기능, 통신언어 표현 기능, 경어법 사용 기능, 태도 드러내기 기능’ 등 모두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언어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8) ‘卡哇伊’는 일본어 ‘かわいい’를 발음 그대로 한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한국어 차용 현상의 확대: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차용 현상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차용 현상은 오늘날 신문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 웹 드라마 등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비롯하여 대중가요 가사, 책이나 가게 이름 등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우선 《생활보》라는 이름의 신문기사에서 사용된 한국어 차용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생활보》 기사 ①



[그림 2] 《생활보》 기사 ②

[그림 1]은 흑룡강성에서 발행하는 신문 《생활보》의 2015년 6월 9일 자 기사이다. 중국 밀산시의 순경들이 커다란 새 한 마리를 발견하고 새의 다리에 달려 있는 라벨을 통해 새가 서울(한국)에서 방생된 사실을 확인 후 “飞累了吃口肉思密达”(나느라 힘들었다. 고기 한입 먹었다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날아온 새임을 밝히기 위해 문장 끝에 ‘思密达(-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한국어 차용어 ‘欧巴(←오빠), 欧尼(←언니)’가 기사 제목의 어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뮤지컬 ‘투란도트’가 하얼빈 오페라하우스의 첫 해외 초청작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欧巴欧尼用声音‘揪’住观众的耳朵(오빠 언니, 목소리로 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한국어 차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는 [그림 3]에 제시한 방송 프로그램 <oh my 思密达>를 들 수 있다.<sup>9)</sup> 주로 한국 연예뉴스를 보도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내용상의 특징 때문에 프로그램 명칭에 ‘思密达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선족이 만든 첫 웹 드라마<sup>10)</sup> 화보에서도 차용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림 4]가 그 예이다. 드라마 화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드라마의 제목은 <金达莱思密达(진달래습니다)>인데, 화보 하단에 <金达莱花美美哒(진달래꽃 예뻐요)>, <不见不散思密达(꼭 만나요 습니다)>’라는 홍보 문구도 있다. 조선족이 만든 이와 같은 드라마에서도 ‘思密达’를 사

9) 이 프로그램은 텐센트(腾讯)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만드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 시작되었다.

10) 이 드라마는 2017년 6월 1일에 첫 방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용한 까닭은 이러한 표현이 중국 시청자에게도 익숙한 표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sup>11)</sup>



[그림 3] oh my 思密达



[그림 4] <진달래습니다>

이상에서 확인한 한국어 차용 표현들이 주로 대중매체에서의 용례라고 한다면, <思密达(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중가요 가사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이 곡은 중국 가수 왕린(王麟)이 2012년에 발표한 것으로 제목에서는 ‘思密达(습니다)’를, 가사에서는 ‘oppa, 欧巴(오빠)’와 ‘思密达(습니다)’를 각각 차용해서 쓰고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22) <思密達(-습니다)>

**oppa oppa**最親愛的**歐巴**(오빠, 오빠, 가장 사랑하는 나의 오빠)

**歐巴歐巴**撒拉嘿**歐巴**(오빠, 오빠 사랑해, 오빠)

**oppa oppa**最親愛的**歐巴**(오빠, 오빠, 사랑하는 나의 오빠)

最親愛的**思密達**(가장 사랑하는 습니다)

愛你**思密達**(사랑해요 습니다)

恨你**思密達**(미워요 습니다)

愛你恨你愛与恨啊**思密達**(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과 미움아 습니다).

한국어 차용어가 책이나 가게 이름 등에 쓰이는 사례도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그림 5]는 《登陸思密达星(‘습니다’별에 상륙)》이라는 제목의 책이름에 ‘思密达’를 쓴 것이다. 이 책은 2014년에 간행된 것으로, 작가 ‘샤오매카페이(小麥咖啡)’가 자신이 한국에서 유학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소재로 한국의 생활, 관광, 풍토민속 등을 만화로 그려 내면서 ‘思密达’를 책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은 모두 ‘思密达’를 차용하여 가게 이름을 지었다. [그림 6]의 ‘思密达’는 한국식 뷔페식당이고, [그림 7]의 ‘思密达 24’는 여러 가지 한식 요리를 하는 식당이다. 이와 같은 식당들은 한국 요리를 주로 판매하는 곳들로 모두 ‘思密达’를 차용하여 그 명칭을 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1) 흥보 문구 가운데 ‘美美哒(měiměida)’와 ‘思密达(simida)’가 각운이 이루어지고 있기까지 한다.



[그림 5]



《登陸思密達星(‘습니다’별에 상륙)》(그림 6) ‘思密达’ 한국식 뷔페

(그림 7) ‘思密达’ 24

#### 4. 결론 및 제언

한류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의 활발한 상호 접촉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두 언어 간의 차용 또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차용 현상을 온라인 매체와 일상생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차용 현상은 한류 현상 자체가 중국에서 이루어진 온라인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국어 차용 현상 또한 온라인을 정보 확인과 의사소통의 주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 결과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에서의 차용 현상은 다양한 품사의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思密达’ 및 문장 차원의 차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온라인과는 차이를 보여 아직은 ‘思密达’나 호칭어 ‘oppa, 欧巴(오빠), 歐尼(언니)’ 등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약은 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언어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에서 어느 정도나 한국어 차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근래 들어 한국에서는 ‘훬귀(火鍋), 마라탕(麻辣烫), 꺾바로우(锅包肉), 샤오롱샤(小龙虾) 같은 음식 용어와 함께 ‘요우커(遊客), 다이공(帶工), 왕홍(网红, wang hong)’ 등의 중국어 어휘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활발한 문화 교류와 관련된 차용 현상을 앞으로 쌍방향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후일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태은(2014), 중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대응-음역어를 통해 본 중국의 언어와 문화,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호, 39-73.  
 양세욱(2004), 「차용어와 현대중국어 어휘체계의 다원성」, 『중국어문학』 48, 한국중국어학회, 450-467.

- 진행남(2011),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Jpi정책포럼』 75, 제주평화연구원, 1-27.
- 판영·이정복(2016), 중국 누리꾼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종결어미 ‘思密达(습니다)의 쓰임과 기능, 『언어와 정보사회』 29,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53-382.
- 한신신·강희숙(2017), 중국어에 나타난 한국어 차용 현상 분석-웨이보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57집, 국어문학회, 433-467
- 한홍석(2005), '한류' 현상으로 본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 『국제 지역 연구』 제 9권 1호, 1-21.
- Harbsmeier, C.(1998),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VII:1, *Language and Log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man, J(1988), *Chine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